

# 중년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자아분화, 내면체계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socio-demographic variables, self-differentiation  
and internal systems on ego-identity of middle-aged women

영남권역 해바라기 아동센터  
상담원 변 외 진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김 춘 경

Young-Nam Sunflower Sexual Abuse Child Protection Center

Counselor : Byeon, Wei-Jin

Dept. of child & Family, Kyungbuk National Univ.

Associate Professor : Kim, Choon-Kyung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e the factor of the variables that contributed to the ego-identity of middle-aged women. The subjects were 751 middle-aged women whose age was from 40 to 60 years old. The instruments used in the study were the assessments of ego-identity, self-differentiation, and internal systems. The data were analysed by using pearson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1) In the result of the analysis about relationships with ego-identity, the ego-ident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differentiation and the self of internal systems a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parts of internal systems; (2) Predictors of ego-identity of the middle-aged women ordered occupation type, the level of education, cognitive-emotional function, self integration, family projection process, self, pleasing/abandoned part, and self-harming part.

Based on these results, the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in this area were discussed.

**주제어(Key Words):** 중년여성(middle-aged women), 자아정체감(ego-identity), 자아분화(self-differentiation), 내면체계(internal systems)

## I. 서론

20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중년기에 관한 연구는 개념적으로나 실증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도외시되어 왔다. 인간의 발달이 주로 청년기까지 이루어지고 그 이후의 삶은 그때까지 형성된 성격이나 자아정체감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이경희, 2005). 그러나 오늘날 산업화로 인해 생활이 향상됨으로써 의식주의 기본욕구에서 벗어나 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추구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인생주기의 각 단계마다 만족된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중년이 또한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이며, 중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중년기 이후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함에 따라 중년기 연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여성에게 있어 중년기는 자녀양육 역할이 감소되면서 가족과 자녀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 독립적이고도 자율적인 자아실현의 욕구가 증대되는 시기이다. 여성들은 이 시기에 그들이 살아왔던 지난 과거와는 상이한 변화와 적응이 필요한 '제 2의 사춘기'를 맞이하게 된다. 지나온 생애를 통찰하면서 자아를 재확립하는 과정에서 오는 심리적 허탈감, 신체적 노화에 따른 폐경, 호르몬의 변화, 역할변화, 역할갈등, 생활양식의 변화, 자녀가 떠나가는 것에 대한 상실감 등으로 인해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겪게 된다.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의 위기문제는 무기력, 우울, 고립, 위축 등의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Wasaha, Angelopoulos, 1996; Wilmoth, 1996), 실제 신경정신과 입원환자 중에 중년여성의 입원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asaha, Angelopoulos, 1996; Washington, 1999; Wilmoth, 1996). 또한 오늘날의 시대적, 사회적 변화는 여성에 있어서의 자아실현 가능성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여성특유의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현재화시키고 있어(이경혜, 1997), 중년여성의 발달적 특성에 기초해 정체감 위기를 조력해 줄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과 우울(김혜영, 고효정, 1998), 위기감(박경혜, 2004; 오명옥, 고효정, 박청자, 2000), 자아분화(이경희, 2005) 등의 한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다.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밝혀,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설명변인을 밝힌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Vanderkooi와 Handelsman(1984)은 자아분화를 자기충동적 정서적 사고와 행동에서 자유를 획득하고 가족자아

에서 자신을 분리 독립시켜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자아분화가 정립된 정도는 다시 순환적으로 자신의 정체감 형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이경희(2005)의 연구에서도 중년여성의 자아분화 정도가 높을수록 중년여성의 정체감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하였다.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과 자아분화가 관련변인이라면,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자아분화의 설명력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Bowen은 개인의 분화수준을 상대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하였으며, 전체 인구의 90%가 잘 분화되지 못한 상태라고 하였다(김영애, 정문자, 송성자, 제석봉, 심혜숙, 김정택, 정석환, 김계현, 이관직, 2002). 이는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아분화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적용에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자아분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980년대 중반 Richard Schwartz에 의해 소개된 내면체계(internal family systems) 모델에서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한다. 이 모델에서는 핵심적 자기(self)와 부분들(parts) 혹은 하위성격들로 구성된 타고난 다차원의 마음을 개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내면체계 모델의 주요개념은 '자기'와 '부분'이다. 자기 지도력을 가진 사람은 '부분'의 역할(agenda)에 의한 강제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자기'에 의한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즉 내면체계에서 자기가 부분들을 리더할 때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므로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가 부분들 간의 분명한 경계선을 마련해 줌으로써 자아분화수준을 높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 자아분화, 내면체계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중년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자아분화, 내면체계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의 주요설명변인으로 규명되어지는 변인들은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방향을 제시하고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구성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 자아분화, 내면체계(자기, 부분들)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둘째, 중년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자아분화, 내면체계 변인 가운데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을 예측하는 주요 설명변인은 어떤 변인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중년기 여성의 자아정체감

중년기는 인생의 전반에서 후반으로 바뀌어가는 전환점으로 성숙기 혹은 갱년기로 묘사되기도 하는데(전산초, 최영희, 1985), 학자에 따라 중년기를 정의하는데 약간씩 차이가 있다. 학자마다 중년기의 구분이 일치되지 않으나 평균적으로 40세부터 60세까지를 중년기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인 구조 및 기능적인 노화현상이 현저해지는 40세부터 폐경을 지나 갱년기 증상이 거의 사라지는 60세까지의 여성을 중년기 여성으로 보고자 한다.

Eri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 의하면 중년기는 7단계에 해당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발달 과업은 생산성/침체감이다. 그러나 인생의 한 단계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는 다음 단계에서도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로 남기 때문에 자아정체감 확립이 성공적으로 해결되었을 때 생산성/침체성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여성의 정체감은 동성인 어머니와의 연결 속에서 독자적 정체감 수립이 어려우며, 독립성을 격려받기 보다는 전통적으로 여성성으로 여겨지는 특성들이 장려되는 사회·교육적 환경 속에서 자랐으므로 독자적인 정체감 수립이 어려웠다. 청소년기에도 미래의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어 정체감 확립이 지연된 채 성인기에 이른다(이경희, 2005). 성인기에서도 자기성취보다는 어머니와 아내 역할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다가, 중년기에 이르러 자녀의 독립과 경제적 안정으로 인해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가지게 된다.

청소년 후기 또는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초기, 또는 성인중기까지의 정체감 지위이행에 관한 중년적 연구들(Adams, Montermayor, Brown, 1992; Josselson, 1987; Kroger, 1988; Marcia, 1976; Waterman, Goldman, 1976)에서 젊은 이들의 많은 비율이 청소년 후기와 성인초기 내내 유실 또는 혼미자로 남아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유추해 보면, 우리나라 중년여성의 지연된 자아정체감의 확립이 중년여성의 주요 발달과업이라고 볼 수 있다.

### 2.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과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중년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교육수준, 소득수준, 건강수준, 직업유무 변인에 관한 연구들이 행해졌다. 교육수준과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에서는 그 결과가 일치되고 있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은아, 1992; 김정주, 1994; 신태수, 1986; 오명옥 외 2인, 2000; 이경혜, 1997; 전정자, 권영은, 1994).

소득수준과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전정자

와 권영은(1994)은 소득수준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나, 김정주(1994)와 오명옥 외 2인(2000)의 연구에서는 소득수준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여성의 소득수준과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에서는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건강수준과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혜영, 고효정(1998)의 연구에서는 현재 질병 유무에 따라 자아정체감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질병이 없는 경우 자아정체감이 더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정신과 김정란(2001)의 연구에서도 건강상태가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었다.

직업유무와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은아(1992)는 주부역할의 비구조성과 비전문적이고 일상적인 가사노동의 성격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 특히 직업이 없는 주부인 경우에는 취업주부에 비해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경향이 더 높다고 하였다. 이경희(2005)는 직업유무에 의한 자아정체감은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직업유무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일치되게 보고하였으므로, 자아정체감에 대한 직업유무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직업유무보다 더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교육수준에 따른 직업유무가 다를 것이고, 경제적 문제로 인해 원치 않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순히 직업유무에 의한 영향보다는 직업유무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0-60세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교육수준, 소득수준, 건강수준, 직업유무 변인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3.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과 자아분화

자아분화가 이루어지면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 가치를 두면서도 자아를 버리지 않고,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만 인정을 받기 위해 자기의 신념 및 가치와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Hartman, 1981). 반면 자아분화를 이루지 못한 개인은 유사자아(pseudo-self)를 발달시키므로 타인 중심으로 자신을 형성해 나간다.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하면 타인의 사랑과 인정을 획득하는데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이질적인 신념이나 원리를 지닌 타인의 압력에 쉽게 자신을 포기하거나 동조하게 되며 타인의 공격이나 비난을 회피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비한다.

개인이 나타내는 부적응적 행동이나 증상은 대부분 자아가 분화되지 못하는데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자아분화수준이 높은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타인과 친근

한 정서적 관계를 맺으면서도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유지해 나가며, 자신과 타인의 신념과 가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목표지향적인 삶을 산다(이경희, 2005). 박아청(1984)은 안정된 가치관과 일관성 있는 태도는 자아분화를 가진 사람의 특성으로 정체감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

이경희(2005)의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자아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정서적 기능, 정서적 단절, 자아통합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분화의 각 하위요인을 단계적 종다회귀 분석한 결과에서는 자아통합이 가장 영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분화에 관한 연구는 이경희(2005)의 한편의 연구에 불과하므로 그 연구결과만으로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구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자아분화의 주요설명변인을 살펴보고 이경희(2005)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 4.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과 내면체계

내면체계 모델은 Richard Schwartz에 의해 소개된 것으로, 인간 심리내면 과정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제공해 주고 있다. Schwartz는 임상적 실험을 통하여 가족 체계 원리와 기법을 개인 심리내면 체계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발견하였다.

구조적/전략적 가족치료자로서 Schwartz는 자신이 가족 치료과정에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추적했던 방식으로 개인내면의 상호작용의 경로를 추적하여, 개인의 심리 내면에 부분(parts) 혹은 하위성격간의 관계체계(연합, 분극화, 희생양, 고립 등)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부분간의 관계가 가족의 역동성과 유사하여 '내면가족체계(internal family systems)'라 부르기도 한다. 내면 부분들은 체계로서 함께 기능하며 그들의 상호작용은 추적이 가능하다. 가족구성원간의 외부적인 상호작용과정의 추적과 유사하다.

부분들은 일시적인 정서적 상태나 습관적인 사고형태가 아니라 정서, 표현양식, 능력에 대한 태도, 욕구, 세계관을 반영하는 분리되고 독립된 정신체계이다. 내면의 각 부분들이 독특하고 개별화되었을지라도, 부분들은 그들이 하는 역할에 의해 관리자(mahagers), 유배자(exiles), 소방수(firefighters)의 세 범주로 나뉜다.

'관리자 부분'은 보호와 관리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부분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저항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유배자 부분'은 과거에 상처를 받거나 수치를 당한 경험에서의 상처받은 감정적 기억들을 깊이 감추어두는 역할을 한다. '소방수 부분'은 유배자로부터 나오는 감정의 불을 끄기 위해 행동을 취하는 부분이다(Nichols, Schwartz, 2004). 중년

여성들 자신의 경험을 지배하는 부분들을 발견하고 그 부분과 연결된 또 다른 부분들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중년여성들이 그들 자신을 부분들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닌, 부분들로부터 분리된 자신의 독립된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조력할 수 있다.

내면체계에서의 '자기' 개념은 다른 심리이론에서의 의미와 달리 영혼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내면체계 모델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손상되지 않은 완전한 자기가 내면에 존재한다고 보며, 자기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신체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Schwarz, 2001). 한 개인은 자기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스스로를 치료하는 방법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서적으로 스스로를 치료하기 위한 고유의 성향을 그 자신 내부에 가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자기'와의 접촉 경험은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은 선천적으로 긍정적이지만 그들이 전하는 부담에 의해 극단적인 역할을 강요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무가치함, 부끄러움, 두려움 등에 대한 부담은 부분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방법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표면상으로 병리적인 사고, 정서 및 행동은 단지 사람들의 작은 부분의 생산물이다. 이런 부분은 결함이 없다. 즉 그들은 단지 나쁜 역할을 강요받았고, 그들은 유용한 역할로 변화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개념은 그들 자신과 상대를 다르게 생각하도록 돕는다. 문제가 있는 존재를 비난하기보다는, 부분들의 만남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은 개인의 부분을 서로 변화시키기 위해 싸우는 것보다는 서로를 존경하고 지지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을 증가시키도록 한다(Schwartz, 1995).

우리나라 중년여성들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내면체계의 부분들을 파악하여, 부분들 자체의 결함이 없음을 이해시키고 그 부분이 부여받은 역할들에 대해서 다루어줄 수 있다면 중년여성들의 자아정체감 확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내면체계에 관한 연구들은 가족(Schwartz, 2001; Breunlin, Schwartz, & Mac KuneKarrer, 1992; Nichols & Schwartz, 2004), 부부(Schwartz & Johnson, 2000; Schwartz, 1999, 2003); 개인(Schwartz, 1992); 아동(Johnson & Schwartz, 2000); 성학대(Goulding & Schwartz, 2002); 섭식 장애(Schwartz, Barrett, & Saba, 1985; Barrett & Schwartz, 1987; Schwartz, 1988); 경계선 내담자(Schwartz & Norman, 2003) 등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내면체계의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아정체감의 주요설명변인으로 확인된 요인은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주요내용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배경변인	n	%
연령	41-45세	249	33.2
	46-50세	265	35.3
	51-55세	156	20.8
	56-60세	81	10.8
교육 수준	중졸이하	130	17.3
	고졸	400	53.3
	(전문)대졸	181	24.1
	대학원이상	40	5.3
직업	전업주부	452	60.2
	상업, 판매직, 서비스직	159	21.2
	사무직, 공무원	39	5.2
	전문직, 관리직	86	11.5
	농, 축산업	11	1.5
	기타	4	.5
결혼 상태	미혼	15	2.0
	결혼하여 동거 중	671	89.3
	사별	36	4.8
	이혼	12	1.6
	별거 중	12	1.6
	재혼	5	.7
주관적 경제 수준	아주 넉넉한 편	5	.7
	넉넉한 편	85	11.3
	보통	508	67.6
	어려운편	132	17.6
	아주어려운편	21	2.8
주관적 건강 수준	매우건강하다	37	4.9
	건강한편이다	297	39.5
	그저 그렇다	305	40.6
	나쁜 편이다	96	12.8
	매우 좋지 않다	16	2.1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6년 2월 6일부터 3월 27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표본의 표집은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40-60세 중년여성 8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의 취지와 방법을 충분히 교육받은 대학원생 4명과 박사 1명, 본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조사요원들이 주부대학, 여성회관, 사회복지관, 종교단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회수된 자료 가운데 응답이 불충분한 자료를 제외하고 751명의 자료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전체대상 751명 여성의 평균연령은 48.3세였다. 전업주부가 60.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현재 배우자와 동거중인 경우가 90%, 사별한 경우가 4.8%, 이혼한 경우가 1.6%이었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중졸이하 17.3%, 고졸 53.3%, 전문대졸이상 29.4%를 차지하고 있어 고졸이상이 82.7%이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4.4%이었으며, 자

신의 경제적 수준을 대체로 보통이라고 지각하는 사람이 67.6% 정도를 차지하였다.

#### 2. 측정도구

##### 1) 자아정체감 척도

자아정체감 척도는 박아청(1996a)이 만든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를 이경혜(1997)가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아정체감 척도는 정체성 유예, 목표지향성, 정체성 혼미, 친밀성, 자기수용, 주도성을 알아보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이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0이었다.

##### 2) 자아분화 척도

중년여성의 자아분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owen의 이론을 근거로 한국 실정에 맞게 제작한 제석봉(198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분화 척도는 인지적/정서적 기능, 자아의 통합,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의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36문항이며, 4점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자아분화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4이었으며, 5개 하위요인 각각에 대한 Cronbach'  $\alpha$ 계수는 인지적/정서적 기능 .71, 자아통합 .70, 가족투사과정 .82, 정서적 단절 .70, 가족퇴행 .81이었다.

인지적/정서적 기능은 자기감정의 통제 능력과 분화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과 충동성 합리화, 약물남용과 같은 불안경감을 주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의 융합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통합은 개인이 관계체계 또는 타인이나 상황으로부터 정서적 압력을 받을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의 신념과 생활 원리를 잘 견지 하는가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투사과정은 부모 자녀간의 의사거래 유형과 투사를 하기 쉬운 부모의 특징을 묻는 문항과 과거에 부모가 표명했던 근심과 현재 상태의 일치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적 단절은 부모에 대해 애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부정이나 고립 등 부모에 대한 반항, 가출의 욕구를 통한 정서적 거리, 위장된 독립성 등을 재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퇴행은 가정에서 위기 발생시 대처방법과 가족성원간의 갈등처리와 폭력의 유무, 책임회피를 하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행위나 제 삼자의 삼각화와 기타 역기능적인 의사유형 등 가족 성원간의 퇴행적 행동을 짚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내면체계 척도

내면체계 척도는 개인의 내면체계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O' Neil, Strongin과 Schwartz(2004)가 개발한 자기 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내면체계 척도는 9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57문항이며, 5점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개발당시 Cronbach'  $\alpha$ 계수는 .98이었으며, 하위요인의 Cronbach'  $\alpha$ 계수는 .83-.96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면체계 척도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면체계 척도 57문항을 하위요인으로 세분화하여 구성한 후, 각 하위요인의 문항이 하위요인 내용에 적합한지를 관련전문가에게 평정을 의뢰한 결과 내용타당도는 .89이었다. 9개 하위요인의 내용타당도 역시 .80-.94로서 각 하위요인의 문항이 하위요인 측정 내용에 적합함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79이었으며, 하위요인의 Cronbach'  $\alpha$ 계수는 .32-.82이었다. Cronbach'  $\alpha$ 계수 .60이하의 하위요인과 다른 하위요인과 상관이 높은 하위요인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는 4개의 하위요인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각 하위요인의 Cronbach'  $\alpha$ 계수는 자기(self) .79, 타인을 기쁘게하는/버림받은(pleasing/abandoned) .61, 격노한(raging) .64, 자해(self-harming) .69이었다.

'자기' 요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손상되지 않은 완전한 상태, 즉 영혼과 같은 개념으로 신체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조용한, 안정적인, 균형감 있는, 따뜻한, 평화로운, 확신에 찬 등의 느낌들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타인을 기쁘게 하는/버림받은' 부분 요인은 안전이 확보될 때 까지 저항하는 '관리자'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비난, 거절,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부분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타인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여 그들에게 맞추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격노한' 부분 요인은 성미가 급하고 화난 감정을 느끼는 부분으로서, 지나치게 예민하고 흥분된 반응을 보이는 부분이다. '자해' 부분 요인은 알콜 중독, 약물 중독, 게임 중독, 자살 등을 포함한 자신을 해치는 여러 행동들이 포함되는 부분이다. 과거의 상처 혹은 수치를 당한 경험에서의 감정적 기억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해롭게 하는 행동을 취하는 부분이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WIN 12.0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중년여성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과 자아분화, 내면체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자아분화, 내면체계 변인 가운데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상대적으로 영향력 있는 예측변인을 찾기 위해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과 자아분화, 내면체계간의 상관관계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과 자아분화, 내면체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은 자아분화의 다섯 하위요인인 인지적/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 모두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정서적 기능과 가장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여성들이 사고와 정서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가질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내면체계와 자아정체감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내면체계의 하위요인 가운데 '자기'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을 기쁘게 하는/버림받은', '격노한', '자해' 부분 요인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면체계가 '자기' 상태일수록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중년여성들의 내면체계가 부분들의 지배를 많이 받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타인을 기쁘게 하는/버림받은' 부분, '격노' 부분, '자해' 부분을 줄일수록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 수준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자아분화와 내면체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인지적/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의 자아분화 하위요인 모두 내면체계의 '자기'와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족퇴행이 '자기'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내면체계의 부분 요인 중 '타인을 기쁘게 하는/ 버림받은' 부분은 인지적/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퇴행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노한' 부분은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모두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인지적/정서적 기능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자해' 부분은 인지적/정서적 기능, 가족투사과정,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인지적/정서적 기능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자아통합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은 내면체계의 자기(self)와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의 상태일수록 자아분화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면체계의 세 부분 모두 자아정체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격노한' 부분과 '자해' 부분은 자아분화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정서적 기능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감정통제능력이 약할수록 격노한 반응과 자해행동이 많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2〉 자아정체감과 자아분화, 내면체계의 상관관계

구분	자아 정체감	자아분화					내면체계			
	1	2	3	4	5	6	7	8	9	10
1	-									
2	.43***	-								
3	.23***	.01	-							
4	.33***	.43***	.07*	-						
5	.17***	.27***	.12**	.35***	-					
6	.29***	.32***	.08*	.28***	.37***	-				
7	.53***	.26***	.21***	.17***	.08*	.34***	-			
8	-.21***	-.15***	-.13***	-.11**	-.09*	-.05	-.06*	-		
9	-.32***	-.55***	-.09**	-.27***	-.23***	-.23***	-.22***	.30***	-	
10	-.40***	-.47***	-.00	-.35***	-.23***	-.29***	-.30***	.32***	.53***	-

\*\*\* $p < .001$ , \*\* $p < .01$ , \* $p < .05$

1: 자아정체감 2: 인지적/정서적 기능 3: 자아통합 4: 가족투사과정 5: 정서적 단절 6: 가족퇴행 7: 자기 타인을 기쁘게 하는/ 버림받은 9: 격노 10: 자해

2.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설명변인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주요설명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직업유형#,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수준, 주관적 경제수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자아분화와 내면체계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mmy variable). 질적 변수를 양적변수로 바꾸기 위해 직업유형1#(1=전업주부, 0=그 외), 직업유형2#(1=상업, 판매 종사, 서비스직, 0=그 외), 직업유형3#(1=전문직, 관리직, 0=그 외)으로 더미화 하였다.

회귀분석을 하기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공선성 진단(VIF검사)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가 모두 .10보다 아주 크고, VIF값이 모두 2-4이하로 나타나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투입 순서는 첫 번째로 중년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투입하였고, 두 번째로 자아분화 변인을 투입하였으며, 세 번째 변인으로 내면체계 변인을 투입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중년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직업유형, 주관적 건강수준, 주관적 경제수준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6% 정도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 자아분화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경우에 직업유형, 주관적 건강수준이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자아분화 변인 가운데 인지적/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가족투사과정, 가족퇴행이 영향력 있는 변인으

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자아통합 변인이 모두 투입된 경우에 자아정체감을 설명할 수 있는 정도는 29%로 증가하였다. 자아분화 변인이 자아정체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도는 23%로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 인지적/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가족투사과정, 가족퇴행 변인이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대해 더 영향력이 있는 변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내면체계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경우에 내면체계가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도는 15% 정도이며,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자아분화, 내면체계 변인을 모두 투입한 경우에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설명력은 44%로 증가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자아분화, 내면체계 변인이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직업유형, 교육수준, 인지적/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가족투사과정, 자기, '타인을 기쁘게 하는/버림받은' 부분, '자해' 부분 변인이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을 예측하는 주요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표 3). 전업주부이거나 전문직·관리직에 종사할 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감정통제능력인 인지적/정서적 기능이 강할수록, 자신(혹은 타인)이 처한 상황과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아통합 능력이 강할수록, 부모로부터 투사된 정도가 작을수록,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적체계의 '자기' 영역이 클수록, 비난 거절에 관한 두려움이 적을수록, 자신에게 해로운 행동을 하지 않을수록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사회인구학적, 자아분화, 내면체계 변인이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변인		자아정체감		
		1단계	2단계	3단계
		$\beta$	$\beta$	$\beta$
사회인구학적 변인	직업1#(전업주부=1)	.18**	.15*	.16*
	직업2#(상업, 판매종사, 서비스직=1)	.20**	.14*	.07
	직업3#(전문직, 관리직=1)	.24***	.15**	.10*
	교육수준	.00	.04	.07*
	주관적 건강수준	.14***	.10**	.02
	주관적 경제수준	.09*	.05	.03
자아분화	인지적/정서적 기능		.31***	.20***
	자아통합		.20***	.13***
	가족투사과정		.12**	.10**
	정서적 단절		.01	.03
내면체계	가족퇴행		.13***	.02
	자기 타인을 기쁘게 하는/바람받은 격노한 자해			.39***
				-.09**
				-.01
				-.10**
	F	8.19***	27.91***	38.35***
	R2	.06	.29	.44
	$\Delta R2$	.06	.23	.15

\* $p < .05$ , \*\* $p < .01$ , \*\*\* $p < .001$   
# = dummy variable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직업유형,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수준, 주관적 경제수준), 자아분화, 내면체계 변인이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여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 자아분화, 내면체계 변인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여성의 자아분화 변인과 자아정체감 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자신의 감정의 통제능력인 '인지적/정서적 기능'이 강할수록, 타인이나 상황으로부터 정서적 압력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의 신념과 생활원리를 잘 견지할 수 있는 '자아통합' 능력이 높을수록, 분리개별화가 잘 될수록, 심리적 독립수준이 높을수록, 위기 대처에 관한 건설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경희(2005)의 자아분화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중년여성의 내면체계 변인과 자아정체감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자기(self)가 강할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비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화를 내는 행동으로 타인을 통제하려 할수록, 자신을 손상시키는 자해행동이 있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며, 자신의 독특한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내면체계는 자기의 에너지(지도력)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부분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면체계가 자기지도력을 가지고 부분들을 리더 할수록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은 확고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중년여성의 자아분화와 내면체계와의 관계에서는, 지적체계가 정서적 체계에서 미분화되고 동질화의 경향이 심하여 가족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나 스트레스에 직면할 때 건설적인 방법보다는 퇴행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는 '가족퇴행'이 심할수록 내면체계의 '자기' 영역이 손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면체계의 '격노한' 부분이 인지적/정서적 기능과 가장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남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고와 정서가 융합되어 사고와 추리 등의 인지 기능이 결여됨으로써 자기감정과 사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자신과 외부세계를 객관적으로 지각하고 평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내면체계의 '격노한' 부분을 다루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중년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직업유형, 교육수준, 주관적 건강수준, 주관적 경제수준 변인이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면체계 변인을 추가로 투입하였을 때 교육수준이 추가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직업유형 중 '상업, 판매종사, 서비스직'은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여성의 직업유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아직 없었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직업유형 중 전문직·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문직 영역에서의 자기개발과 성취감이 자아정체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선행연구(김은아, 1992; 김정주, 1994; 신태수, 1986; 오명옥 외 2인, 2000)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능력 개발 욕구가 높으며, 이로 인한 실제 자기개발의 노력을 더 많이 가짐으로써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김혜영, 고효정, 1998; 김경신, 김정란, 2001)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중년기의 질병유무는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체적인 질병은 사회적, 경제적, 가족적, 개인적인 여러 차원에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인생설계나 목표가 재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수준과 자아정체감은 관련이 없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정주, 1994; 오명옥 외 2인, 2000)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 자신이 생각하는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자장, 권영은(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높은 경제수준은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한 자기개발 활동에 경제적 자원이 될 수 있으므로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중년여성의 자아분화는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준다는 이경희(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되게 본 연구에서도 중년여성의 자아분화 수준은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분화 변인이 자아정체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도는 23%로 나타났다. 인지적/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가족투사과정, 가족퇴행이 자아정체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인지적/정서적 기능이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지적/정서적 기능, 자아통합, 정서적 단절이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이경희(2005)의 연구와 어느 정도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경희(2005)의 연구에서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의 주요설명변인으로 확인된 '정서적 단절' 변인은 본 연구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경희(2005)의 연구에서는 설명력을 가지지 않았던 '가족투사과정'이 주요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자아분화 변인의 영향력에 대한 더 많은 후속연구가 이루어진 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중년여성의 내면체계 변인 역시 자아정체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면체계 변인이 자아정체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도는 15%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인을 밝힌 것으로 본 연구가 지니는 중요한 의의라 할 수 있으며,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내면체계 모델의 적용이 가능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중년여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자아정체감에 대해 가지는 설명력은 6% 정도였으나, 자아분화, 내면체계 변인을 추가한 경우에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설명력은 47%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아분화 변인이 가지는 설명력은 23%로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여성의 자아

정체감 증진을 위해 자아분화 수준을 높이고, 내면의 자기와 부분들 간의 역동성을 파악하고 다루어줄 수 있는 심리치료적 개입이 적절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주요설명변인으로 밝혀진 자아분화 변인을 내면체계 모델에 근거하여 자아분화 수준을 높여줌으로써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용적 의의가 있다. 감정적, 정서적 측면에서 벗어나 지적체계를 강화하고, 의존적인 생활태도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자아분화를 높이는 방안이며, 이것은 내면 부분을 체계적으로 다루어 자기-지도력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대구와 경북의 특정 지역만 선정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에 소개된 내면체계 모델이 우리나라 중년여성에게 유용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본 것은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라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내면체계 척도는 아직 국내에서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형 내면체계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가 후속연구로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정서와 실정에 맞는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면체계 부분들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인의 내면체계는 어떤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설명변인을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으로 내면체계 모델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해 봄으로써, 중년여성의 내면체계에 대한 더 많은 질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 참고문헌

- 김정신, 김정란(2001). 중년기 기혼여성의 자아정체감 및 위 기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4), 105-120.
- 김영애, 정문자, 송성자, 제석봉, 심혜숙, 김정택, 정석환, 김계현, 이관직(2002). *가족치료: 개념과 방법*.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은아(1992). 중년기 부인의 자아정체감과 생의 의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주(1994). 중년여성의 자아정체감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영, 고효정(1998). 중년기 여성의 우울과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3(2), 117-138.
- 박경혜(2004). 중년 여성의 자원봉사활동과 자아정체감이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아청(1984). 변모하는 한국중년여성의 생활스타일의 모색. *성인교육* 2, 계명대학교 사회교육연구소, 40-60.
- 박아청(1996a).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5(1), 140-162.
- 신태수(1986). 성인기의 자아정체감과 개인적 특성과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명옥, 고효정, 박청자(2000).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한국모자보건학회지*, 4(1), 17-31.
- 이경혜(1997). 중년 기혼여성의 역할적응과 자아정체성 형성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2005). 중년여성의 자아분화와 자아정체감과의 발달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산초, 최영희(1985). 노인간호학. 서울: 수문사.
- 전정자, 권영은(1994). 중년기 여성의 자아개념과 갱년기 증상과의 관계연구. *성인간호학회지*, 6(1), 48-57.
- 제석봉(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dams, G. R., Montermayor, R., & Brown, B. B. (1992). *Adolescent ego-identity development: An analysis of patterns of development and the contributions of the family to identity formation during middle and late adolescence*.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Barrett, M., & Schwartz, R. C. (1987). Couple treatment for bulimia. In J. Harkaway(Ed.), *Eating disorder*. Rockville, MD: Aspen Systems Corporation.
- Breunlin, D. C., Schwartz, R. C., & Mackune-Karrer, B. (1992). *Metaframeworks: Transcending the models of family therapy*. San Francisco: Jossey-Bass.
- Goulding, R. A., & Schwartz, R. C. (2002). *The mosaic mind: Empowering the tormented selves of child abuse survivors*. Oak Park, IL: Trailheads Publications.
- Hartman, A. (1981). Bowen family systems: Theory and Practice. In E. R. Tolson & W. J. Reid (Eds.). *Models of family treatmen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Johnson, L. C., & Schwartz, R. C. (2000). Internal family systems: Working with children and families. In C. Everett Bailey (Ed.), *children in therapy*. New York: W. W. Norton & Co.
- Josselson, R. (1987). *Finding herself: Pathways to identity development in women*. San Francisco: Jossey-Bass.
- Kroger, J. (1988). A longitudinal study of ego identity status interview domains. *Journal of Adolescence*, 11, 49-64.
- Marcia, J. E. (1976). Identity six years after: A follow up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551-558.
- Nichols, M. P., & Schwartz, R. C. (2004). *Family therapy: Concepts and methods*. 6th edition. Boston: Allyn & Bacon.
- O'Neil, L. F., Strongin, D. L., & Schwartz, R. C. (2004). The development of a personality scale based on the internal family systems model. *Journal of Self Leadership*, 1(1), 1-32.
- Schwartz, R. C. (1988). Women and eating disorder. In F. Walsh & C. Andson (Eds.), *Chronic disorder and the family*. New York: Haworth.
- Schwartz, R. C. (1992). Rescuing the exiles. *Family Therapy Networker*, May/June.
- Schwartz, R. C. (1995). *Internal Family Systems Therapy*. New York: Guilford Press.
- Schwartz, R. C. (1999). The self-to-self connection: Intimacy and the internal family systems model. In J. Carlson & I. Sperry (Eds.), *The intimate couple*. Philadelphia, PA: Bruner-Mazel.
- Schwartz, R. C. (2001). Internal family systems therapy. In J. Carlson & D. Kjos (Eds.), *Theories and methods of family therapy*. Boston, MA: Allyn & Bacon.
- Schwartz, R. C. (2003). Pathways to sexual intimacy. *Psychotherapy Networker*, May/June.
- Schwartz, R. C., Barrett, M. J., & Saba, G. (1985). Family therapy for bulimia. In D. Garner & P. Garfunkel (Eds.), *The handbook for the treatment of anorexia and bulimia*. New York: Guilford press.
- Schwartz, R. C., & Johnson, S. M. (2000). Does couple and family therapy have emotional intelligence? *Family Process*, 39, 29-34.
- Schwartz, R. C., & Norman, D. M. (2003). Maintaining self leadership with "borderline" clients. *Journal of Self Leadership*, 1(1), 32-37.

- Vanderkooi, I. K., & Handelman, M. M. (1984). Toward an integration of Jungian and Bowen perspectives on psychotherapy. *Family Therapy, 6*, 615-623.
- Wasaha, S., & Angelopoulos, F. M. (1996). What every women should know about menopause. *American Journal of Nursing, 96*(1), 25-32.
- Washington, O. (1999). Effects of cognitive and experimental group therapy on self-efficacy and perceptions of employability of chemically dependent women. *Issues Mental Health Nursing, 20*, 181-198.
- Waterman, A. S., & Goldman, J. A. (1976). A longitudinal study of ego identity development at a liberal arts colleg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 361-369.
- Wilmoth, M. C. (1996). The middle years: women, sexuality and the self.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and Neonatal Nursing, 25*(7), 615-621.

(2006년 10월 23일 접수, 2006년 11월 30일 채택)